

다산포럼

십자가를 장검으로 휘두르는 ‘증오의 종교’



성명 전 서강대 철학과 교수

이, 비록 일부지만 민족 화해와 경제 정의라는 정치 문제만 나오면 견해가 다른 진보 인사들에게 집단적 증오를 가차 없이 쏟아내는 언행이 고스란히 보수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극심한 결과다. 로마 제국 300년 박해를 벗어났고 유럽 전역이 기독교를 믿게 되자, 그 종교는 자기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까지 믿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장검으로 버려 내어 이단자 박해, 십자가 전쟁, 마녀 화형, 유대인 학살, 30년 종교전쟁을 자행하면서 ‘증오의 종교’로 변신해 왔다.

구체적으로 로마 주교 우르바노 2세는 1095년 클레르몽에 교회회의를 소집하고서 예루살렘 성지를 무슬림에게서 탈환하자며 ‘성전’을 선포하였다. 갑옷에 십자가를 새기고 칼을 뽑아든 사람들에게 “오로지 신심에 불타 하느님의 교회를 해방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는 사람에게 그 길은 온전한 보속으로 여겨진다”는 교서를 발표하여 하느님의 축복과 보속 면제를 약속하였다. 유럽 각지에서 소집된 십자가군이 항구로 집결하는 도중에 맞닥뜨린 유대인 마을은 불타고 주민들은 학살당했다. 제1차 원정에서 예루살렘을 점령한 크리스천들은 항복한 도성의 비무장 시민 7만 명을 모조리 살

육했다. 이슬람, 유대인, 심지어 크리스천을 구분 않고.

그 뒤 1000년이 흐르고 ‘구주강생’ 2001년에 ‘9·11 테러’가 터졌다. 사태를 보고받은 조지 부시 대통령의 첫마디가 ‘십자가군! 테러를 무찌르는 전쟁!’이었다. 사흘 후 미국 최초의 교회당이라는 뉴욕 감리교회에 모인 미국 지도자들의 거룩한 예배는 부시의 ‘전쟁 선포’였다. “역사에 대한 우리 책임은 이 공격에 응답하고 악의 세계를 박멸하는 일이다.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다니! ‘페마침’ 상 대전에서 싸움을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 방식대로 끝장을 내겠다”고 했다. 무역센터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범인 확인은 필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형사책임은 반드시 개인적이어야 하고 그 책임을 테러리스트가 속한 어떤 국가나 민족이나 종교로 확대될 수 없습니다”라 했던 구교 요한바오로 2세의 호소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마르틴 루터는 ‘타키텐들(이슬람)에 반대하여 싸우는 것은 그들을 통하여 우리의 여행을 해지시는 하느님께 반항하는 것이다’는 신문을 표방했다. 구교에서 파문 당했던건 미국 기독교도들은 독실한 대통령들을 앞세워 지난 20년 가까이 아프간 점령, 제2차 이라크전쟁, 리비아와 시리아

공격으로 ‘십자가군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전 50년은 ‘반공 전쟁’이었고.

한국 기독교는 신구교가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에 열중하였고, 해방을 맞고 38선으로 국토가 양분되자 ‘반탁운동’에 앞장서더니 ‘반공의 보루’로 변신했다. 적어도 4·3 제주에서 시작하여 군경의 손에 희생당한 100만여 명의 민간인 학살은 기독교 장로 대통령 이승만의 1948년 11월 4일자 명령서에 근거한 것임이 밝혀지기도 했다. 신실한 믿음으로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는 신구교도들이 대부분임에도, 후대의 역사가 자칫 기독교를 한때, 아니 특히 요즘 반공을 명분으로 삼는 증오심에 마구 들린 집단으로 비웃을까 걱정스럽다. “우리가 진리임을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은 믿음 바로 그것이 악마다!”(움베르토 에코)라는 경고를 무시하면 어느 종교도 마구 들린 집단으로 표현할 수 있다.

1980년 3월 24일, 기독교 나라 엘살바도르에서 크리스천 장군이 보낸 ‘죽음의 부대’의 크리스천 병사들이 성당으로 들어와 미사를 드린 로마노 대교구를 쏘 죽였다. ‘빨갱이’라면서. 그리고 40년이 지난 10월 14일 그 대주교는 ‘정의와 인권을 위해 목숨 바친’ 순교자로서 바티칸 광장에서 성인으로 시성되었다.

NGO칼럼

자녀의 마음에 한 발짝 더 다가가자



차은선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하고 있는지 나오니까?”라는 질문을 하셨다.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다. 많은 부모들은 청소년 자녀와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돈 버는 것보다 사춘기 자녀와 대화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호소한다. 부모와의 대화에 ‘고급’ (고구마 답답이 : 앞뒤가 딱 막힌 사람)이란 신조어를 사용할 만큼 청소년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부모-자녀 모두 서로 대화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현실은 서로에게 어려운 일인 것 같다.

그렇다면 대화란 무엇일까? 대부분 부모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라고 비교적 정답에 가까운 답을 하지만, 청소년들은 “대놓고 화내는 것”이라고 한다. 청소년들은 대화를 주로 잘못했을 때 듣는 잔소리와 훈계로 느끼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다. 이렇듯 청소년 자녀와의 대화는 마음만 먹는다고 쉽게 되는 일은 아니기에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대화하는 부모가 되려면 첫째, 자녀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자녀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녀의 일상생활에 관심이 없다면 대화는 불가능해진다. 자녀를 관찰하며 이해하는 것에서 대화는 출발할 수 있다. 매일 5분간 자녀와

대화를 권유했을 때 많은 부모님들이 “오늘 다 물어봤는데 내일은 또 무엇을 물어야 할지, 할말이 없다”고 막막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대화의 자리를 빌미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줘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자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듣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녀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월 1회 정도 함께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둘째, 자녀의 감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사실 확인이나 맞다 틀리다 같은 방식이 아닌 지금 자녀의 기분과 감정은 어떤지? 무슨 말을 하고 싶어할까?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할까? 생각하며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고 노력해야 한다. 일상의 일들을 나열하며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기분과 감정을 깨어 이야기하기에는 쉽지 않다. 자녀가 얼마나 속상한지, 왜 화가 났는지 등을 말로 표현하도록 도와주면 자녀도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조금씩 길러지게 된다. 더불어 자녀의 감정을 함께 느끼고 표현하는 것으로 공감해야 한다.

셋째, 충분히 듣고 공감한 뒤 부모의 입장을 이야기한다. 자녀와의 대화에서 부모의 생각을 먼저 전달하지 않고, 자녀

가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 하고 들어주어야 한다. 자녀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해결 방법이나 조언을 부모 관점에서 먼저 이야기하게 되면 자녀가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들어주는 태도를 보이고, 꼭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충분히 듣고 나서 후에 전달하도록 한다. 때로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부모의 역할에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소중한 우리 자녀와 잘 지내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의 로망이다. 바쁜 일상에서 부모는 자녀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하는 미안해 하지만, 우리 자녀는 양적인 시간보다는 진실한 마음을 전하고 내 얘기를 들어주는 질적인 대화를 더 좋아한다. 부모와의 대화를 거부하는 모습들을 단순히 사춘기적 특성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녀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고, 자녀가 바라는 부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요즘처럼 자녀 교육에 대한 이론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많이 알고 있는 것 보다는 한 가지라도 먼저 실천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늘부터 자녀가 바라는 부모의 모습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자녀의 마음에 한 발짝 더 다가가도록 노력하는 부모가 되어 보자.

社說

자치단체 행정정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광주·전남 자치단체들이 여전히 정보 공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민선 7기 들어서도 원문 정보 공개율은 매년 낮아지는 추세인 데다, 걸표지만 공개해 놓고 ‘공개’로 분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서 드러났다.

전남 지역 자치단체의 원문 정보 공개율은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원문 정보 공개란 공무원이 업무 중 생산한 정보를 국민의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원문으로 공개하는 제도를. 자료에 따르면 순천(29.9%)과 장성(24.5%)의 경우 올 상반기 원문정보 공개율이 20%대에 불과했다. 목포의 올 상반기 원문정보 공개율도 44.3%로, 전년도(51.8%)보다 떨어졌다. 광양(40.3%), 담양(41.2%), 신안

(41.2%), 여수(43.9%), 곡성(43.2%) 등도 40%대에 불과해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방침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는 광주 지역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광산구 20.8%, 동구 28.8%, 북구 31.8%, 서구 33.3%, 남구 38.0% 등으로 자치단체들이 정보 공개에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행정정보 공개율이 낮다는 것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일이 아니다. 가능한 한 행정정보를 국민의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원문으로 공개하는 제도다. 자료에 따르면 순천(29.9%)과 장성(24.5%)의 경우 올 상반기 원문정보 공개율이 20%대에 불과했다. 목포의 올 상반기 원문정보 공개율도 44.3%로, 전년도(51.8%)보다 떨어졌다. 광양(40.3%), 담양(41.2%), 신안

시의회 ‘부의장 수행 비서’ 철회 당연하다

광주시의회가 의전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의장들을 수행할 비서를 배치해 달라고 요구해 논란을 빚었다. 특히 의장과 두 명의 부의장 등 의장단은 동료 시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행 비서 신설을 밀어붙여 비난을 샀다.

광주시의회는 내년부터 부의장을 7급 상당의 직원이 수행하게 해 달라는 내용을 포함한 조직 개편안을 최근 광주시에 제출했다. 부의장들이 의장 공석 시 회의 진행이나 외부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아 수행 비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부의장은 장재성(서구1)·임미란(남구3) 의원 등 두 명으로, 현재는 김동찬 의장에게만 6급 전담 수행 비서가 배치되어 있다.

하지만 앞서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23명의 의원 중 세 명의 의장단만 부의장 수행 비서 신설에 찬성하고 다른 시의원들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시의회는 ‘부의장 수행 비서’를 ‘의회 총무과 수행

인력’으로 바꿔 광주시에 요구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부의장 수행 비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논쟁을 샀다.

부의장의 업무는 의장이 없을 때 대신 외부 행사에 참석하는 게 대부분이고 이 경우 의장실에 배치된 비서가 수행할 수 있는데도 별도의 인력을 꼭 배치해야 하는지 의문스럽다. 더욱이 현재 광주시의회는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일당 독점’ 구도 속에 집행부에서 최소 6인 이상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의회는 여론이 악화하자 어제 오후에야 부의장 수행 비서 총인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공문을 광주시에 제출했다고 한다. 뒤늦게나마 입장을 바꾼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편으로 시의회는 의회 주자장에 의원 지정석을 운영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시의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탈권위 시대를 거스르는 무리한 요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無等鼓

마치 종이를 오리엔 듯하다. 투조(透彫) 기법으로 구리판을 자유자재로 도려내다양한 무늬를 형성화했다. 자세히 보면 반복되는 육각형 모양 속에 여러 가지 문양이 능률처럼 디자인되어 있다. 봉황, 기린, 인면조(人面鳥)와 같은 상상 속의 동물이다. 압권은 완곡 금동신발 등에 달린 용머리 장식이다.

지난 주말, 나주 복암리 정춘고분-마한사람들, 큰 무덤에 함께 잡들다’ 특별전(-2020년 1월 5일)이 열리고 있는 국립 나주박물관을 찾았다. 1500여 년 전 마한인의 고분에서 나온 백제계 금동신발(길이 32cm·높이 14cm) 한 켤레가 유라박

듯 금동신발 주인공의 삶을 추적했다. 실제로 유사한 환경에서 실험을 해 보니 금동신발 주인공은 돌방 외부에서 최소 6일 정도 애도 기간(甯)을 가졌고, 장례 시기는 9월로 나타났다.

특별관 내에는 정춘고분 1호 돌방무덤이 똑같은 크기로 재현되어 있다. 부모와 함께 전시장을 찾은 어린 남매가 ‘2호 나무널’과 ‘3호 나무널’ 자리에 드러누워 즐겨워한다. 돌방무덤을 빠져나오면 정춘고분 금동신발이 전시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표면을 장식한 다양한 문양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자신의 미적 안목을 탓할 필요는 없다.

다. 바로 옆에 설치된 터치스크린 기기를 통해 금동신발을 360도로 돌려 살펴볼 수 있고 용이나 봉황, 기린과 도깨비 문양에 대한 설명문을 볼 수 있으니 말이다.

연구진은 첨단 법의학 기술을 이용해 금동신발 주인공의 얼굴을 복원했는데 금금치 않은가. 1500여 년 전, 기록을 남기지 않은 영산강 유역 마한(馬韓)의 여성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직접 특별전을 찾아 확인해 보시길!

/송기문 문화2부장 song@

금동신발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牧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월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주목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3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고

가정 위탁은 가정 회복



정준영 광주주세생명교회 목사

해주는 아내에게도 마음 깊은 곳에서 고마운 생각이 든다.

위탁 부모를 하면서 그동안 두 아이가 우리 집을 거쳐갔다. 한 아이는 당시 세 살이었는데 1년 반 남짓 같이 지내다가 아이의 아버가 재혼을 하면서 새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싶어해서 돌려보내게 되었다. 그러나 아이와의 작별이 쉽지 않은 양았고 아내의 후유증은 상상 외로 컸었다. 얼마나 많은 정을 주며 키웠는지, 그 아이를 떠올릴 때 마다 눈물을 흘리곤 했었다. 그런 아내를 보면서 내심 정도 아프고 눈가에 눈물이 흐르기도 했다.

돌이켜 보면 그때는 가정 위탁 제도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다. 가정 위탁은 부모의 사망이나 질병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거나 아동 학대나 이혼 등으로 가정이 해체된 뒤 친인척들이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때, 가정위탁센터를 통해 일정 기간 아동을 잘 돌봐 줄 수 있는 가정을 선별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서 다시 친가로 보내는 ‘회복’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그때는 제도의 정확한 목적을 잘 모르고 있어 아이를 친가정에 보낸 뒤 아픔을 겪기도 했었다. 우리에게로 온 두 번째 아이도 1년 남짓 양육했는데, 감사하게도 친가정이 회복되어 집으로 보내졌다.

지금 돌보고 있는 세 번째 아동은 함께 지낸 지 12년째에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다. 오랫동안 같이 지내면서 꼭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고 위탁 부모’에게 있어서 ‘아이고 더 귀하고 좋은 아동 복지 제도가 또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한다. 친부모와 함께 지내는 아이들 중에도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많은데, 착하게 잘 성장해 주고, 미래를 내다보며 아름답게 자라주는 위탁 아동을 보면, 대견스럽고 기뻐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런 좋은 모습만은 아니었다. 처음에 위탁 아이가 우리 집에 왔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면 ‘아! 어떻게 해서 다시 친가로 보내는 ‘회복’에 초점

도 되었는데, 지금은 주위 사람들도 바르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눈빛이고, 모두 아름답게 바뀌는 것 같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온다.

주위에서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남을 유익하게 하는 선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지는 것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부여받은 ‘위탁 부모’가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가정 위탁은 아동은 물론 위탁한 친부모, 그리고 위탁 부모인 우리들도 큰 수혜자이며, 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자랑스럽고 더욱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이고, ‘사는 기쁨, 웃는 기쁨,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쁨’이 따라 오는 것 같다.

우리 부부에게 나눌 만한 작은 마음이 있어서 감사하다. 가정 위탁을 만나서 보람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하다. 우리의 미래인 소중한 아이를 돌보며 앞으로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소망해 본다.